

2023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인도남아시아 권역



지켜주고 싶은 보석, 스리나가르의 달 호수와 빼할감 계곡

송인영

햇살에 일렁이는 윤슬이 반짝반짝 빛나는 달 호수(Dal Lake)와 하늘로 쪽쪽 뻗은 울창한 침엽수림. 그 주위를 둘러싼 장갑차와 실탄으로 무장한 개구리 군복. 평화와 긴장이 아슬아슬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이곳은 인도의 화약고, 잠무 카슈미르의 주도 스리나가르(Srinagar)다.

인도에 온 지도 어느덧 18개월이 흘렀다. 틈틈이 시간을 비워 두고 때로는 비행기를, 때로는 기차를

타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던 나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북인도 땅을 밟고 왔다. 8월 12일 토요일부터 8월 15일 화요일까지 인도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3박 4일간 스리나가르 배낭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북인도 지역은 수려한 자연과 깨끗한 공기로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히마찰 프라데시주의 심라(Shimla)와 마날리(Manali), 라다크의 레(Leh)를 비롯해 대자연의 위용에 압도되는 곳들이 가득하

다. 쟁쟁한 후보지 중에서 꼭 집어 카슈미르의 스리나가르를 고른 이유는 아름다운 호수 달 때문이었다. 새벽의 푸른 햇살부터 어스름 노란 노을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호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조차 되지 않기에 오래전부터 두 눈으로 직접 담기를 소망해 왔다. 칙칙한 껌빛이라 밋은 없어도 절대 때가 타지 않는 20L 배낭을 등에 메고 델리 국내선 터미널에 도착했다.

스리나가르까지 직항으로 1시간 20분이면 충분한 비교적 가까운 거리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비행편이 많지 않아 각 항공사에서 매일 한 대만을 취항했다. 그만큼 가깝고도 먼 곳이었다. 끊임없는 종교 분쟁과 소요 사태로 인해 여행 자체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스리나가르는



비록 아직까지 삼엄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기
는 하나 점점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
가 되었다. 이제는 하루에 100여 편의 비행기가 끊임
없이 오르내리는 고도 1,655m의 공항에 마침내
스파이스 제트(Spice Jet)를 타고 도착했다.

스리나가르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폴색 군복과 철모의 그림자는 약 10km 떨
어진 시내 랄 촌(Lal Chowk)을 지나 달 호수까지
춤춤하게 이어졌다. 곳곳에 군용 지프와 장갑차까
지 정차해 있어 인도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생
경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실탄을 맨 군인들의 얼굴
은 단조로운 듯 날카로웠고 그 옆을 지나가는 시민
들의 얼굴은 긴장한 듯 편안했다. 모든 것이 혼재된

공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해야 할지
헤매기도 했지만 그 오묘한 감정조차 신비롭게 다
가왔다.

마침내 마주한 달 호수는 그림 같은 호수의 전형이
었다. 흐들거리는 물풀과 연꽃, 물 위를 떠다니는
샛노란 나무배, 일렁이는 수면 위로 수놓아진 산맥
의 그림자까지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온했다. 어디
를 가도 사람이 많아 늘 어지럽고 시끄러웠던 텔리
와 몸바이를 생각하면 스리나가르의 호수는 조용
하다 못해 차라리 적적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
연과의 교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한 것이었
다.

자비롭지 못한 8월의 태양빛을 피해 새빨간 꽃무
니 커튼 안으로 숨어들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사공의 노질은 삐걱삐걱 정겹기만 하고 살살
불어오는 호수바람이 뺨에 닿는 감촉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좌우로 춤추는 선체에 몸을 맡긴
채 크게 숨을 마셨다. 비릿한 물냄새와 싱싱한
풀냄새가 동시에 밀려와 오랜 시간 매연과 모
래에 찌든 폐를 깨끗이 닦아주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호수 안쪽으로 들어가자마자 이내 안
타까운 민낯이 드러났다. 태초의 정결했던
모습은 인간의 손이 닿을수록 망가져만 갔
다. 카슈미르 대학 연구(2016)에 따르면 달
호수의 32% 이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
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15개가 넘는
대형 하수구가 달 호수에 각종 오수와 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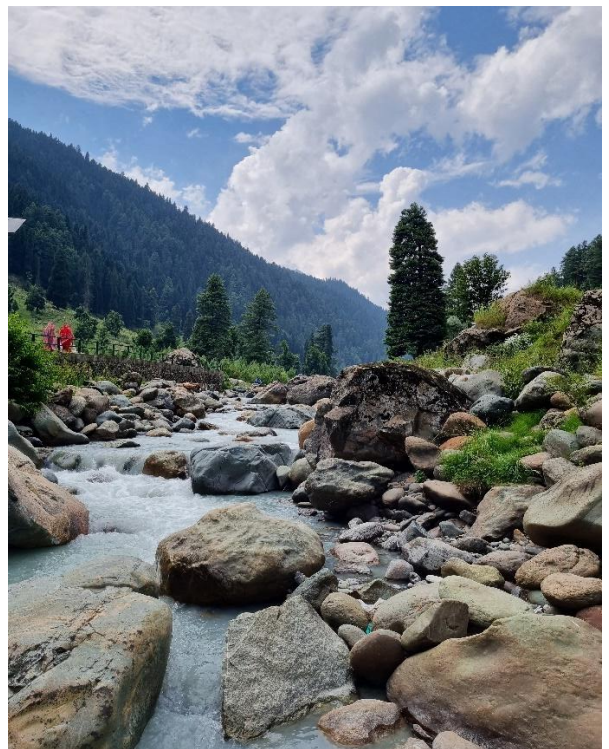
물을 쏟아내고 있다. 2017년에 이미 하루 방류량이 4천4백만 리터에 달했으나 2023년 현재는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두렵다.

보트가 지나가는 물길 양옆으로 빼곡하게 떠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는 쇠내가 났고 물 위로 엉겨 붙은 잡초 사이에도 과자 봉지와 페트병이 오도 가도 못한 채 붙잡혀 있었다. 그 속에서 아랑곳 않고 낚시를 하거나 풍덩풍덩 물속에 뛰어들어 물장구치는 주민들을 보며 놀라운 마음과 걱정스런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다.

달 호수는 스리나가르의 보석(Jewel of Srinagar)이라고도 불린다. 에메랄드가 부럽지 않을 푸른 절

경과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하고 영롱한 물의 기운이 보석이 아니면 무엇이 보석이겠는가. 스리나가르에서 으뜸으로 귀한 보석이 눈앞에서 망가져 가는 모습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그럴 듯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뒤 어떻게 변해갈지 알 것만 같은 슬픈 예감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이튿날은 이곳 현지인과 함께 빠헬감(Pahalgam)을 다녀왔다. 여행객들은 대부분 당일치기 코스로 소남막(Sonammarg)이나 굴막(Gulmarg)을 선택하기 때문에 나 역시 굴막을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스리나가르에서 만난 여러 토박이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빼헬감을 추천했다. 여름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니 반드시 들러야 한다고 말이다. 그렇게 계획에 없던 즉석 여행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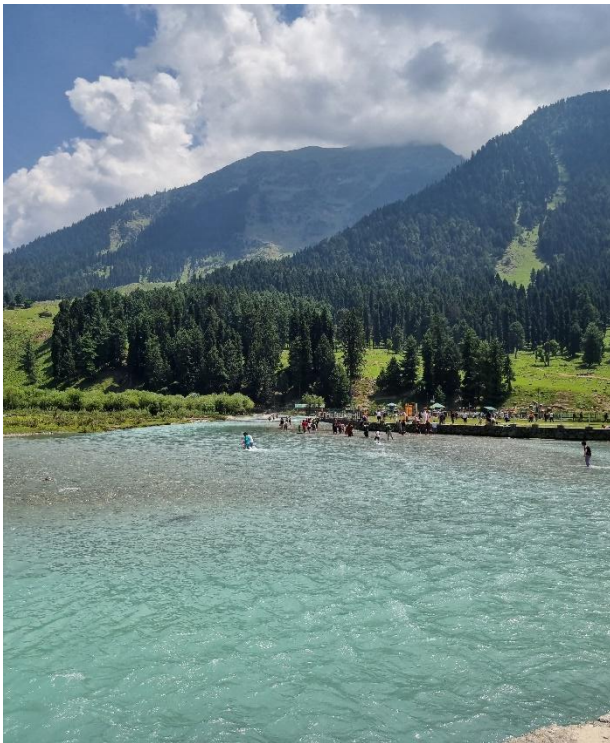
왕복 7시간이 걸렸다.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군인들에게 가로막히는 바람에 멀리 돌아가야 했는데 안전 벨트가 고장난 낡은 혼다 소형차로는 상당히 버거운 노정이었다. 더군다나 빼헬감은 관광객의 경우 오후 4시 전까지 빠져나가지 않으면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할 만큼 통행금지가 엄격했다.

분명 쉬이 걸을 내어주는 곳은 아니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도착한 빼헬감은 어디에 내놓아도 뒤

지지 않을 태곳적 자연을 품고 있었다. 산맥 속에 쫘쫘 숨은 계곡물은 비취옥이 녹아내린 듯 쿵쿵 흘러가고 한 폭의 액자처럼 고요한 산속에는 하얀 말과 크림색 양떼가 풀을 뜯었다. 비현실적인 경관에 말문이 막혔다. 아무리 크게 눈을 떠도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다.

깊은 곳까지 용케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인도인이었다. 외국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고 소중한 마을. 문득 이곳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 호수처럼 망가뜨리지 않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영원히 빛나도록 보호해야 하건만 벌써 곳곳에 비닐봉지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이러다 빼헬감마저 금세 더러워지진 않을까 마음이 무거웠다. 아

름다운 곳에는 반드시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은 오염되기 마련이니 이곳의 운명도 이미 슬픈 끝맺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리나가르로 돌아오는 혼다 뒷좌석에서 지그시 눈을 감았다. 온 신경이 쭈뼛 돈을 만큼 시렸던 계곡물이 발가락 사이에서 찰랑거린다. 다시 돌아갈 델리에서는 절대 볼 수 없을 험준한 산맥과 뽕죽한 나무들, 물안개 피어오르는 호수와 하얀 거품 일렁이는 계곡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날 다음을 기약해 본다. 그때까지 달 호수와 빼헬감 계곡이 보석처럼 귀한 얼굴빛을 잃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

